

1900-1910년대 家政 教科書에 관한 연구\*  
- 현공림 발행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訂家政學』을 중심으로 -

전 미 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A Study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1900-1910's :  
an analysis of 『Hanmun Gajeonghak』, 『Sinpyeon Gajeonghak』 and  
『Sinjeong Gajeonghak』 published by 'Hyun Kong-Ryeom'

Jun, Mi-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published by 'Hyun Kong-Ryeom(玄公廉)' that was the first textbook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lso disapprov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Korean Government appointed the textbooks used in school. The textbooks of home economics appointed in 1910 were 『Hanmun Gajeonghak(漢文家政學)』 and 『Sinpyeon Gajeonghak(新編家政學)』. But Japanese government disapproved these textbooks soon after it fully controlled Korea.
2. 'Hyun Kong-Ryeom' who published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was from translator family that was famous since early Chosun Dynasty. The translator at that time with good command of foreign language introduced foreign books to the intellectuals of Chosun Dynasty.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was also translated at that time.
3. 『Hanmun Gajeonghak』, 『Sinpyeon Gajeonghak』 and 『Sinjeong Gajeonghak(新訂家政學)』 published by 'Hyun Kong-Ryeom' were the translations of the same book. 'Hyun Kong-Ryeom' published the 『Hanmun Gajeonghak』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and 『Sinpyeon Gajeonghak』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character in combination in December 1907, which were translations of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published by 'Oh Yeo Ryeon(吳汝綸)' in China in July 1902. The textbook of 'Oh Yeo Ryeon' was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Sinseon Gajeonghak(新選家政學)』 that was published by 'Shimoda Utako(下田歌子)' in Japan in 1900.

---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교신저자: 전미경(preba@chol.com)

4.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written by 'Hyun Kong-Ryeom' was composed of five units, that is, general introduction, management of family members, family norms, family hygiene and home economy. The composition of the book by 'Hyun Kong-Ryeom'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Sinseon Gajeonghak' by 'Shimoda Utako'. This difference was made in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of 'Oh Yeo Ryeon'.
5. The characteristics of home in the textbook of home economics by 'Hyun Kong-Ryeom' were summarized as follows. ①Home as a national basic unit, ②Home for education, ③Home for rest, ④Home for the consumption.

주제어(Key Words):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교과서(Home Economics Textbooks), 현공림(Hyun Kong-Ryeom), 시모다 우타코(Shimoda Utako)

## I. 서론

갑오개혁을 통한 교육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은 두 가지 방면에서 추진되었다. 그 한 가지는 국민 대중을 위한 근대적 초등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근대적 개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시급히 육성하는 것이었다(정재걸외, 1994:202). 근대적 국가는 유능한 소수의 인재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필요로 했고, 이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신념이었다. 교육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여성 역시 교육의 대상으로 조망되기 시작하였다. 장래 어머니가 될 여성은 미래의 조선의 기둥인 아동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은 근대적 학교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흔히 최초의 여학교라 일컬어지는 이화학당(1886년)을 비롯하여 기독교 단체에서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뜻있는 인사들은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여학교의 설립은 여성이 가정 밖의 공적 공간인 '학교'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학생이 탄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기 여학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한 교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해진 교과과정을 정비하지 못하였다. 이화학당의 경우

만 살펴보다라도 1904년 중등과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일정한 교과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생길 때마다 교과목이 첨가되었다.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설립된 초기의 교육목적은 한결 같이 한국적인 주부를 만들고 보다 나은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부가 교육목적이라 할지라도 주부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습득할 수 있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과목 즉 '가사'는 학교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1896년에 가셔야 생겼다. 이것은 무엇보다 교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찾지 못한데 있었다(정덕희, 1993a:14). 이후 여학교의 학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서 여학교의 교육목표는 더욱 뚜렷하게 '현모양처'로 수렴되었다. 교육받은 '어머니'에 의해 자라나는 아동, 교육받은 '주부'에 의해 관리되는 가정의 일상은 부국강병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성교육의 목표가 현모양처의 여성상 정립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여성교육의 핵심은 가정과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기의 가정과 교육은 소학교에서 재봉교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등 여학교의 경우 1903년 정신여학교가 4년제 중학교로 인가받아 가정과로 '가사', '침공', '침선'을 두었고, 1904년 이화학당 역시 4년제 중학교로 인가받아 가정과로 '생리'와 '재봉'을 두었다(정덕희, 1993a:30).

가정과 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읽을

구축하는 주요한 기제이기에, 초기 근대교육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발행 및 교과내용의 구성은 일제 식민지의 주요한 정책이었다. 한 국가의 국민은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공통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흡수한다. 교과서는 그 편찬, 발행 주체 국가의 역사성과 주어진 상황이 강력하게 반영된 그 시대의 가치와 이익 추구의 결집물로 조성된 도서이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당시대인들이 소망하는 수많은 요구, 이념, 사상의 체계적 성장과 과학의 발전, 나아가 미래 지향적 설계를 구도한 종합적인 결집체로서의 교수-학습용 출판매체인 것이다(이종국, 1991:57-58). 이러한 일면은 가정교과서에도 정확히 적용된다. 특히 우리사회에 처음으로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으로 강조되었던 '가정' 교과와 그 교과서의 발행 상황 및 교과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정'과 '여성'에 대한 당대의 욕구를 읽을 수 있다.<sup>2)</sup>

한편, 전미경(2004)에서도 논의되고 있듯이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개화기 및 식민지 시기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개화기 및 식민지 시기의 교육령의 변천에 따른 가정교과목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정덕희(1977; 1978; 1980; 1981; 1982; 1993a; 1993b)의 논문은 매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들 논문에서 정덕희는 개화기, 식민지 시기, 해방 직후의 정부수립기까지 초·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의 교과과정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sup>4)</sup> 따라서 후속의 연구는 교육령에서 보이는 가

정과 교과목의 변천 외 가정교과서가 발간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 및 교과구성, 그리고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의 의미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가정과 최초의 교과서라 할만한 玄公廉 발행의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그리고 『新訂家政學』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의 세 교과서가 발간되기까지의 배경 및 교과서의 외형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세 교과서를 발행한 현공령과 함께 이 세 교과서의 母本에 해당하는 교과서와 이 교과서의 저자인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공령 발행의 일련의 가정교과서가 학부에서 검·인가 되는 배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각 교과서의 저자 및 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둘째,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전체적 체제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가정교과서의 교육내용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교과서의 물리적 외형은 조판형식, 판형, 지질, 문체, 활자와 서체, 단, 채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은 내용분석을 시도하여, 대·중·소단원을 살펴보고 그 단원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을 규제하는 매우 강력한 '담론(discourse)'임에 주목하여 가정과의 교과내용이 가족을 어떤 방향으로 주도하려 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가정교과서의 발행 상황 및 그 교과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 교과목의 사적변이를 추적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근대초기의 가정교과서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강윤호, 1973; 이종국, 1991; 정덕희 1993a)는 현공령 발행의 일련의 가정교과서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과서의 발행인과 역자, 그 모본(母本)과 원저자에 대한 소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현공령 발행의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과정 및 그 교과서의 모본과

2) 초기 근대교육에 있어 교과서 발행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는 이종국(1991), 정재걸 외(1994), 이혜영 외(1997), 오성철(2000), 이승구(2001) 참조.

3) 故 정덕희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셨던 일련의 가정교과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했던 가정교과서를 확보하고, 또 그 연구결과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덕희 선생님 소장의 가정교과서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정덕희 선생님의 귀중한 서적을 기꺼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선생님의 동생 정중순 선생님과 교원대학교의 광병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 그 밖에 가정과 교육의 사적변화를 다룬 논문으로는 양문식(1973)과 우영희(1973)이 있다.

원저자, 그리고 원본이 조선에 유입되는 과정에 나타난 교과내용의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공립 발행의 일련의 가정교과서가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가 인가한 '가정' 교과목의 교과서이기에 그 의의는 더욱 높다.

## II. 1910년 전후의 가정교과서

### 1. 학부인가·불인가 가정교과서

근대적 학교교육이 완성되는데 있어 교과서의 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기에, 조선에서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학부는 '교과서' 발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이 중요한 만큼 교과서의 발간 및 인허가 등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빠르게 수렴되었다. 합방이 되기 이전부터 식민지 교육정책의 그늘 아래에 들어간 조선의 학부편집국은 「교과용도서일람」<sup>6)</sup>을 발간하는 것으로 교과용 도서를

통제하였다. 여기에는 학부에서 편찬·검정·인쇄·인가한 교과용도서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 불인가 교과용 도서목록이 있다. 이 「교과용도서일람」은 가정교과서도 언급한다. 가정교과목에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로는 학부에서 편찬한 국정교과서나 검정을 받은 교과서는 없었고, 다만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교과서가 있었다.<sup>7)</sup> 1910년 1월에 학부에서 발행한 「교과용도서일람」 4판과 동년 7월의 5판에서는 고등여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 교과서로 현공립 발행의 『漢文家政學』과 『新編家政學』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1912년에 발행된 제6판에는 이 서적이 '불인가교과용도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1913년에 발행된 제7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 서적을 불인가교과서로 분류하였다. 이후, 1914년의 제8판부터는 앞서의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과 함께 『新訂家政學』까지 불인가하였다.<sup>8)</sup>

<표 1>과 <표 2>에 나타났듯이 학부편집국이란 공식

<표 1> 1910년 현재 학부 인가 가정교과서

| 과목 | 서명    | 책수 | 1부<br>정가 | 저작자          | 발행자 | 인가한 사립학교의 정도 |
|----|-------|----|----------|--------------|-----|--------------|
| 家政 | 漢文家政學 | 1책 | 1원       | 下田歌子<br>作新社譯 | 玄公廉 | 고등           |
|    | 新編家政學 | 1책 | 90전      | 玄公廉<br>朴永武   | 玄公廉 | 고등           |

출전: 학부편집국, 「교과용도서일람」 1910.1. (중보 4판)<sup>5)</sup>

<표 2> 1912년·1915년 현재 조선총독부 불인가 가정교과서

| 1912년 1월 개정6판  |       |    |              |     |                       |
|----------------|-------|----|--------------|-----|-----------------------|
| 과목             | 도서명   | 책수 | 저역자          | 발행자 | 발행년월일                 |
| 家政             | 漢文家政學 | 1책 | 下田歌子<br>作新社譯 | 玄公廉 | 융희원년(1907년) 12월 초판    |
|                | 新編家政學 | 1책 | 玄公廉<br>朴永武   | 玄公廉 | 융희원년(1907년) 12월 초판    |
| 1914년 10월 개정8판 |       |    |              |     |                       |
| 과목             | 도서명   | 책수 | 저역자          | 발행자 | 발행년월일                 |
| 家政             | 漢文家政學 | 1책 | 下田歌子<br>作新社譯 | 玄公廉 | 융희원년(1907년) 12월 초판    |
|                | 新編家政學 | 1책 | 玄公廉<br>朴永武   | 玄公廉 | 융희원년(1907년) 12월 초판    |
|                | 新訂家政學 | 1책 | 玄公廉          | 玄公廉 | 대정2년(1913년) 5월 25일 초판 |

출전: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

적 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된 가정교과서는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이다. 그 밖에 보통학교에서 사용된 1910년 이전의 가정교과서로는 『國文 新撰家政學(신찬가정학)』이 있다. 이 교과서는 1907년 9월에 순국문체로 쓰였으며, 전체 100쪽이며 정가는 30전이고 石文館에서 발행되었다.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역자는 박정동이다. 박정동은 가정교과서 외에 『初等大東歷史』, 『初等本國地理』, 『初等修身』, 『改訂新選理化學』 등을 역술한 당대의 유명한 교과용 도서편찬자였다(정덕희, 1977:529; 정은경, 1997:307).

## 2. 가정교과서의 저·역자 및 발행인

근대계몽기 개항과 함께 본격화 되는 서구문물의 유입은 구미선교사에 의한 직접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사실 선교사와의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조선보다 앞서 서구문물이 유입된 중국과 일본은 '서구'가 조선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역관의 활약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역관들은 근대계몽기 지식인 계층으로서 근대적 문물에 대한 견문이 넓으며 다양한 주제 분야의 서적들을 번역하여 일반 지식인층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켰다(정은경, 1997:305).

타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가정교과서 역시 역관 층에

- 5) 이상의 내용은 1910년 7월의 증보 5판과 차이가 없다.
- 6) 현재 『교과용도서일람』은 11판까지 확인되고 있다. 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한 것이 1-5판이며, 6판 이후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되었다.
- 7) 당시 조선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기에, 교과목마다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국정제본 실시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국정제와 함께 검정제가 병용되었으며, 국정과 검정을 받은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검정'과 '인가'의 차이는 검정신청은 교과서 출판자의 일이고, 인가신청은 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서를 학교의 필요로 신청하는 것이다(장신, 2004:8).
- 8) 전미경(2004)은 식민지 시기 총독부에서 인가한 가사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용도서일람(6판)』에는 '검정교과용도서', '인가교과용도서' 목록에 가정과 교육 교과서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 되었다.

의해 조선에 소개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교과서인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의 발행인은 모두 현공령으로, 그는 조선시대 대표적 역관가문인 川寧玄氏 집안의 28대 손이다. 조선시대 역관은 중인이었으나, 이들은 조선왕조국가에서 통치체계의 실무 영역을 맡고 있었던 계층이다. 중인층은 국가경영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대대로 세습하여 익혔으며 행정실무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실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 왔다. 이런 중인층 가운데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집단이 역관 층이었으며, 이들은 淸職과 要職에만 오르지 못할 뿐 상당히 높은 지배신분층에 위치하고 있었다(김영경, 1997:6-9).

한편, 역관집안 출신인 현공령이 발행한 이 3권의 가정교과서는 각각 문체와 발행일만 다를 뿐 그 교과내용은 거의 동일하다.<sup>9)</sup> 『한문가정학』과 『신편가정학』은 모두 1907년 12월에 발행되었으나 전자는 순한문본이고 후자는 국한문본이다. 1913년에 발행된 『신정가정학』은 『신편가정학』과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문체는 국한문본이다. 그런데 『한문가정학』의 서론을 살펴보면, 이 책의 원저자는 일본의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이며, 이를 중국의 吳汝綸이 大清光緒 28년 즉 1902년 7월에 한문본으로 漢譯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한역된 책을 1907년 12월 현공령이 한성(경성)에 소개한 일한도서주식회사에서 한문본 『한문가정학』과 국한문본 『신편가정학』으로 각각 발행하였다. 이제 세 권의 책이 발행되는 과정 및 저자와 발행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 ①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

먼저, 1907년 발행된 『한문가정학』의 서문을 살펴보면 이 책이 중국의 '吳汝綸<sup>10)</sup>'에 의하여 한역되었으며, 그가 번역한 이 책은 다시 일본의 '日本華族女學校' 학감인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에 의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모다가 저술한 가정교과서를 오역된

9) 정덕희(1993a:49-50)은 1906-1910년에 사용되었던 가정과 교과서를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이 3권의 가정교과서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新編家政學』의 경우 그 목차까지 언급하고 있다.

10) 오여륜(1840-1903)은 청나라 말기의 문인으로 桐城派의 대표적 학자였다.

이 漢譯하였고, 이를 다시 韓譯하여 현공림이 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최초의 가정교과서라 할 수 있는 현공림 발행의 가정교과서의 원저자는 시모다 우타코인 것이다.

시모다(1854-1936)는 1854년 이와무라(岩村) 藩主 히라우 주조(平尾録藏)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우타코(歌子)라는 이름은 1872년 황후로부터 하사 받은 것이다. 28세 되던 1882년 그녀는 여성교육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기 시작하는데 사립 토요(桃夭)학교를 설립하여 일본 상류계급의 자녀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시모다 우타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가정'과 '여성교육'에 관하여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의 하나는 아마도 39세 되던 해인 1893년 구미자국의 여자교육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유럽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싶다. 1895년 8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찰에서 그녀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기까지 한다. 이후 시모다는 여성교육에 관한 활발한 저술활동과 함께 여러 여성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한다. 1898년에는 帝國婦人協會를 조직하여 그 회장을 역임하였고, 1899년에는 제국부인협회부속실천여학교와 여자공예학교를 설립하고 그 교장이 되었으며, 제국부인협회 기관지 《일본부인》을 발간한다. 이후 그녀는 애국부인회를 설립하면서 그 기관지 《애국부인》을 발행하였다. 1936년 10월 8일 만 83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시모다는 『新選家政學』 2권을 저술한 것을 비롯하여, 『家庭文庫』, 『小女文庫』, 『子女教養全書』, 『女子自修文庫』 5권, 『衛生經濟家事實修法』, 『家庭의 榮, 婦人文庫』, 『婦人常識의 養成』, 『婦人禮法』, 『禮法家事婦人修養十講』, 『女子의 修養』, 『家庭』, 『女子의 禮法』, 『結婚要訣』, 『女子의 義務』, 『婦女家庭訓』, 『良妻와 賢母』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sup>11)</sup> 오여름은 「한문가

정학』 서론에서 시모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시모다가 부인의 몸으로 구미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여성교육을 창도하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여성교육을 진흥시켰다고 하면서, 이 책의 역술로 말미암아 중국의 急務중 하나인 '여성교육'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 ② 玄公廉

이제 이 연구의 주된 텍스트인 가정교과서를 발행한 현공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가정교과서 발행인인 현공림의 가계는 조선시대 유명한 역관 집안이었다. 특히 근대계몽기 현공림의 집안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였기에 수많은 서적을 역술함으로써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구문물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먼저 현공림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활발한 역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끝없이 생산하였던 그의 아버지 玄采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현공림의 아버지 현채(1856-1925)는 川寧玄氏의 27대손으로 18세 되던 1873년 漢語 譯科에 급제한 이래 그는 부산항서기관, 외무아문교섭주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번역관의 관직을 거쳤다. 현채는 1895년 학부로 옮겨 외국어학교와 한성사범학교에서 부교관으로 지냈다가 잠시 평강군수로 임명되었고 1896년 이후 학부 편집국 위원으로 교과서 편찬 작업에 종사하였다. 중앙 정부는 외국문물의 수용을 위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외국어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1895년 현채를 외국어학교의 부교관으로 위촉하였다. 현채는 약 12년 동안 학부에서 근무한 후 광무 11년(1907)에 해직되었는데, 이는 「越南亡國史」, 「法蘭西新史」, 「東國史略」 같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서적을 저·역술하고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1909년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규정한 출판법이 공포된 후 처음 압수당한 7종의 책 가운데 4책이 그의 저작이었음을 볼 때 국가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학부 해직 후 현

11)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녀의 가정학 저서는 조선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은 아니라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 그녀의 책이 중국에 유입되는 한 경로를 그녀의 학교에서 수학한 청국유학생들에서 찾은 것은 무리한 상상일까? 어쨌든 1901년 그녀의 실천여학교에 처음으로 청국유학생 한명이 입학하였고, 1905년에는 이곳에 청국 유학생부를 세웠으며, 1907년에는 청국 봉천성(奉天省)에서 선발된 관부유학생 23명의 교육을 위촉 받았고, 그 외에 사비 유학생까지 입학하여 1914

년까지 9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2) 조선 후기 유력한 역관집안인 현녕천씨 집안은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개화기 이후 외국서적의 발행을 포함하여 현채가문에 대한 연구는 노수자, 1969; 정은경, 1997; 김영경, 1997; 전세영 1999; 김양수, 1998 등의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채의 저·역술서는 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였는데, 국어교과서를 사용될 수 있는 『幼年必讀』을 포함하여 『初等算術小學』, 외국의 역사서인 『羅馬史附意大利史』, 『日本史記』, 『東西洋歷史』, 자연과학 교과서인 『最新高等小學理科書』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漢語 역관인 현채는 학부 편집국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적의 편찬과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익혔고,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근대적 서적발행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현공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현채가는 저·역술자 뿐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정은경, 1997:311).

현채의 아들 현공림(1872-1930)은 아버지 현채와 함께 구한말 활발한 출판활동을 펼쳤다. 그는 배제학당 출신으로 협성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의 구마모토(熊本)에서 유학하였고, 귀국 후에는 한성사범학교 교관(1906)을 지내기도 하였다. 31세가 되던 1904년에는 대창서원을 설립하였고, 1907년에는 주한영 등과 함께 황성서적업조합을 결성하였다. 1912년에는 대창서원의

분점을 냈으며, 1920년에는 대창서원과 함께 보급서관을 운영하였다. 또 그는 보성관의 관장이자 당대의 유명한 저술가 및 발행자였던 오영근과 함께 처음 『波蘭末年戰史』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신편가정학』등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수십여 권의 서적을 발행하였다. 현공림을 포함하여 한말과 식민지시기 현채가에서 저·역술한 서적으로는 『大韓地誌』, 『俄國略史』, 『中東戰記』, 『普通教科東國歷史』, 『淸國戊戌政變記』, 『萬國史記』 등이 있다.

### III.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교과서의 체제

#### 1.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특징

여기서의 외형적 특징은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교과서의 문체, 판형, 지질 등의 서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특징

| 교과서 명 | 조판형식 | 판형              | 지질      | 문체  | 활자와 서체                           | 단  | 제본  |
|-------|------|-----------------|---------|-----|----------------------------------|----|-----|
| 新訂家政學 | 세로짜기 | 국판<br>(150X220) | 양지(갱지류) | 국한문 | 활자: 신식연활자<br>서체: 한문-명조체<br>한글-궁체 | 1단 | 호부장 |
| 漢文家政學 | 세로짜기 | 국판<br>(150X210) | 양지(모조지) | 한문  | 활자: 신식연활자<br>서체: 명조체             | 1단 | 호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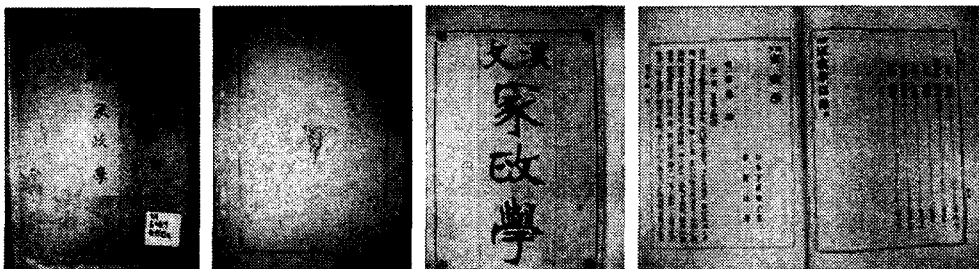


<그림 1> 『新訂家政學』의 겉표지·속표지·본문

『신정가정학』은 국한문본으로 세로짜기이며, 양지의 종이에 국판(150X220)의 판형을 가지고 있으며, '겉표지-속표지-목차-본문-판권면-겉표지'로 구성되어 있다. 호부장 제본<sup>13)</sup>의 이 서적은 교과서의 제명인 '新訂家政學'이 세로로 덧붙여있다. 속표지에는 '新訂家政學'이라는 교과서 제목과 함께 '대정2년(1913년) 5월'이라 적기되었다. 또 '玄公廉發行'이라 쓰여 있으나 이는 玄公廉의 오식이다. 속지에 이어, 17쪽에 걸쳐 목차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후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 시작 면에는 '新訂家政學'이란 제목과 함께 '玄公廉編'이라 쓰여 있다. 본문 뒤 판권면에서는 이 교과서가 대정2년(1913년) 5월 22일 인쇄되어, 동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발행소는 경성의 '유일서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문가정학』의 외형적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가정학』은 순한문의 세로짜기이지만, 『신정가정학』과 마찬가지로 크기는 국판(150X210)이며, 양지의 종이에, 호부장 방식으로 제본되었다. 또 『신정가정학』과 달리 서언과 광고가 첨부되어 '겉표지-속표지-서언-목차-본문-판권면-광고-겉표지'의 구성을 갖는다. 먼저, 교과서의 겉표지에는 꽃그림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세로로 표제가 들어가 있다. 속표지에는 표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무런 단서도 없다. 또 머리말에 해당하는 '서언'은 '序' 부분과 '凡例'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이것은 현공림이 아닌 중국에서 발행될 당시의 역사인 오여륜에 의해 쓰였다. 이 서언에는 『신정가정학』에

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본 책의 원저자가 일본인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이며, 이 책을 한역하여 편찬한 이가 '吳汝綸'이라는 등, 책의 발간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한다. 또 '序'의 마지막에는 '大清光緒二十八年秋七月'이라 한 것으로보아 중국에서 처음 발행된 시기는 1902년 7월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쪽에 걸친 목차 이후 이어지는 본문의 시작 쪽에는 『신정가정학』과 달리 '日本下田歌子著'라 하여 원저자를 밝히고 있으며, '作新社譯'이라 하고 있다. 본문 뒤 판권면에서는 유희 원년 즉 1907년 12월에 인쇄·발행되었으며, '玄公廉'이 발행 겸 역자이며, 정가는 1원임을 알 수 있다. 또 인쇄는 후지타 켄이치(藤田謙一)가 대표로 있는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다. 경성의 서소문에 위치한 이 인쇄소는 1906년부터 아버지 현채가 부사장으로 있는 인쇄소로 당시 현채가의 많은 수의 서적이 이곳에서 인쇄되었다. 그 밖에 판권면에는 전국의 '발매소'가 기입되어 있다. 판권면의 광고에는 현공림이 발행하고 발매하는 저서들이 '신서적정가목록'이란 제목으로 정가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sup>14)</sup>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한문가정학』과 함께 『신편가정학』 책의 목록이 있었는데, 이 책들은 각각 1원, 90전이었다. 新書에 대한 광고에 이어 '중앙서관'과 이곳의 지점인 '신민서회'의 광고가 특별광고로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뒤표지 가운데에는 작은 아기천사가 태극기와 꽃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한문가정학』은 앞서의 『신정가정학』보다 6년여나 일찍 발행되었음



〈그림 2〉 『漢文家政學』의 겉표지·속표지·본문

13) 호부장 제본이란 제본방식의 하나로 책의 옆매기를 철사로 하는 방식이다. 당시 대부분의 교과서가 호부장 제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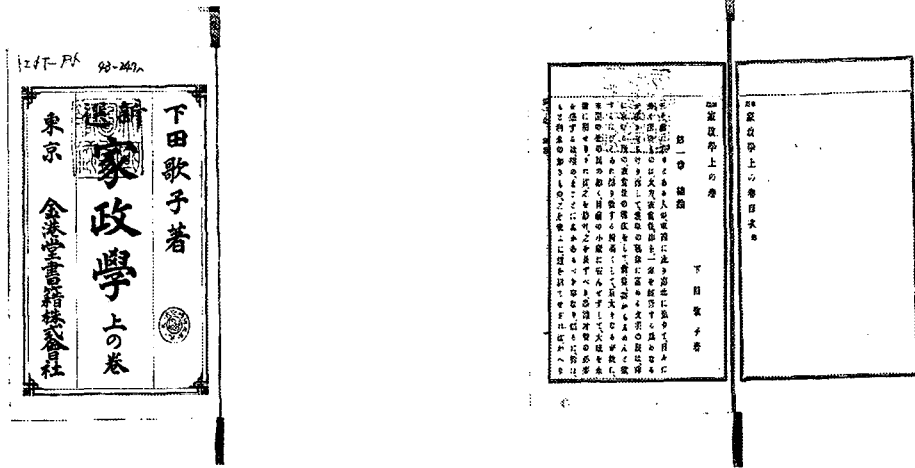
14) 광무·유희년간을 통하여 몇 종류의 교과용 도서가 출판되었는지 그 수요를 명시하여 줄 만한 자료는 없다. 김인정



에도 불구하고 그 지질과 인쇄상태가 훨씬 양호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오여륜은 자신이 한역한 가정학 책의 원저자를 시모다로 밝히고 있지만, 정확히 그녀의 어떤 책을 한역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2년 7월에 시모다의 책이 한역되었다고 할 때, 적어도 1902년 이전에 발행된 책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시모다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1902년 이전에 발행한 가정학 관련 저서로는 1886년 『家政學』 상하권과 1900년의 『新選家政學』 상하권이 있는데, 그 목차를 비교해 본다면 오여륜은 『신선가정학』 상하권을 편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7〉, 〈표 8〉 참조).

수록된 범례에는 이 교과서의 발간목적 및 취지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후 목차와 본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하권은 서문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구성방식은 상권과 동일하다. 판권면에는 '저자권소유'라는 인장과 함께 교과서명, 저자, 발행소, 발행인, 인쇄자, 정가, 발행일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 교과서가 명치 33년(1900년) 8월 31일 인쇄되어 동년 9월 4일 발행되었고, 발행자는 동경에 있는 金港堂書籍株式會社이며, 인쇄소는 帝國印刷株式會社이며, 상하권의 정가는 각각 45전, 50전임을 알 수 있다. 상하권 마지막에 포함된 광고는 이 교과서가 발행된 金港堂書籍株式會社發行教科用圖書販賣所의 新書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상하권 모두 동일하다.



〈그림 3〉 시모다 우타코의 『新選家政學』 상권(1900년)의 표지 및 본문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신선가정학』의 상권은 '겉표지-속표지-서문(범례)-목차-본문-판권-광고-겉표지'로, 하권은 '겉표지-속표지-목차-본문-판권면-광고-겉표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권의 속표지에는 “下田歌子 著”, “新選 家政學 上の券”(하권의 경우는 “下の券”), “東京 金港堂書籍株式會社”가 적기되어 있다. 상권에만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시모다는 이 책을 ‘여자사범학교, 사범학교여자부 및 고등여학교’의 가사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술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밖에 가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교과서는 발행일 다음해인 1901년 ‘華族女學校’와 ‘제국부인협회부속실천여학교’에서 교수하기 위하여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시모다는 주부가 집을 다스림에 있어 그 주의 해야 할 개요적 내용을 먼저 총론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이란 교과목이 여성이 수행해야 할 ‘주부’라는

교과용도서로 신청되어 인가내지 불인가된 수권에 관한 통계를 제외하고는 이 밖에 민간의 각 출판단체에서 발행한 교과용 도서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각 도서의 권말이나 학회·교육회지 및 판보·신문 등에 게시된 공고·광고를 참고할 도리 밖에 없다(강윤호, 1973:124).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모다는 교과내용 중 가내위생, 가정경제, 육아, 가정교육 영역은 특별히 유명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덧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과내용에서 유념한 또 하나의 측면은 실용성이다. 시모다는 가정교과서의 지식이 실천에 도움이 되어 실용적 교과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한편, 가정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은 당시의 타교과목의 교과서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이종국(1991)에 따르면, 학부에 의해 초기에 출판된 교과서들은 근대적 활판 인쇄기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양식 용지 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근대적 장정 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판 양식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전 근대적인 인쇄, 장정에 대한 근대적인 내용을 담은 부조

화한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는 초기에는 전통적 체제를 유지하다가 1905년 이후에는 점차 근대적인 체제로 변화하여 갔다.

2.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공립 발행의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은 동일한 교과구성을 보이기에, 여기서는 『신정가정학』을 중심으로 가정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224쪽에 이르는 『신정가정학』은 '總論', '家人의 監督', '家人의 風範', '衛生', '一家의 財政' 등 모두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단원은 '家人의 監督'과 '衛生' 단원이다. 이러한 단원구성은 『漢文家政學』과도 동일하다. 즉 번역과정에서 오는 쪽수의 차이만 있을 뿐 대·중·소단원의 구성 및 전개에 차이가 없다.

<표 4> 가정교과서의 단원 및 단원별 쪽수 (%)

| 교과서명                 | 단원  |     |     | 총쪽수 | 목차 쪽수 | 본문쪽수 | 總論     | 家人의 監督   | 一家의 風範   | 衛生       | 一家의 財政  |
|----------------------|-----|-----|-----|-----|-------|------|--------|----------|----------|----------|---------|
|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       |      |        |          |          |          |         |
| 漢文家政學                | 5   | 28  | 88  | 213 | 18    | 184  | 7 (3%) | 68 (36%) | 35 (19%) | 62 (33%) | 13 (7%) |
| 新編家政學 <sup>15)</sup> | 5   | 28  | 88  | 243 | 18    | .    | .      | .        | .        | .        | .       |
| 新訂家政學                | 5   | 28  | 88  | 224 | 17    | 216  | 8 (3%) | 84 (38%) | 44 (20%) | 70 (32%) | 14 (6%) |

<표 5> 시모다 우타코의 『新選家政學』 단원별 쪽수 (%)

| 상권  |     |     |       |       |            |            |            |            |            |            |           |
|-----|-----|-----|-------|-------|------------|------------|------------|------------|------------|------------|-----------|
| 단원  |     | 쪽수  |       |       | 대단원        |            |            |            |            |            |           |
| 대단원 | 중단원 | 총쪽수 | 목차 쪽수 | 본문 쪽수 | 總論         | 家內 衛生      | 家事 經濟      | 飲食         | 衣服         | 住居         |           |
| 6   | 26  | 123 | 4     | 112   | 11 (9.8%)  | 23 (20.5%) | 15 (13.4%) | 27 (24.1%) | 12 (10.7%) | 24 (21.4%) |           |
| 하권  |     |     |       |       |            |            |            |            |            |            |           |
| 단원  |     | 쪽수  |       |       | 대단원        |            |            |            |            |            |           |
| 대단원 | 중단원 | 총쪽수 | 목차 쪽수 | 본문 쪽수 | 小兒 教養      | 家庭 教育      | 養老         | 看病         | 交際         | 避難         | 奴僕 使役     |
| 7   | 28  | 153 | 4     | 144   | 35 (24.3%) | 15 (10.4%) | 17 (11.8%) | 16 (11.1%) | 33 (22.9%) | 15 (10.4%) | 13 (9.0%) |

15)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택희(1993a:51-52)를 참조하였

다.



우고 가르치며, 자녀의 학교교육을 돕고, 노인을 봉양하고 환자를 간호하고 노비를 관리하는 것을 주부가 돌보고, 관리하는 즉 '감독'해야 할 '家人'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단원인 '一家之風範'은 시모다의 『신선가정학』에는 없는 내용으로 오여륜이 한역할 때 첨부된 단원이다. '一家之風範'은 모두 8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중단원 '교제'를 제외하고 7개 단원 모두가 오여륜에 의해 삽입되었다. 넷째 단원인 '위생' 단원은 6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여륜은 시모다의 『신선가정학』 대단원인 '가내위생', '음식', '의복', '주거', '피난'을 자신의 책의 '위생'이란 대단원 아래에 배치하였다. 더불어 오여륜은 대단원 '위생'에 시모다의 책에 없는 '室內運動及身體之清潔' 내용을 첨가하였다. 다섯 번째 단원인 '一家之財政'은 시모다의 '家事經濟'의 교과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오여륜은 자신의 '가정' 교과서를 편역할 때 시모다의 교과내용에서 추가한 내용으로, 중단원인 '소학교육'과 '室內運動及身體之清潔'이며, 대단원 '一家之風範'에서 '교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중단원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모다의 가정교과서를 한역한 오여륜은 당시 중국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요구에 맞게 교과내용을 수정하였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오여륜의 가정교과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위생'이라 할 수 있다. 오여륜은 재래의 유교적 女性婦德을 포함하여 長幼의 질서 등의 유교적 관 계윤리를 강조하였으며, 공기, 토지, 운동, 의, 식, 주, 재난의 영역을 '위생'이란 영역으로 수렴시키고 있었다.

#### IV.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

한말 및 식민지 초기의 가정교과서의 교과내용은 현 공립 발행의 『新訂家政學』(1913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總論

- ① 家政의 關係: 家は 國의 근본이기에, 國의 治平·德教·財用을 위하여 家は 바람직한 덕교·경제·위생을 실천해야 한다.

- ② 家政의 必要: '家政學'의 학문됨은 '治家'의 道와 '術'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家政 즉 집을 다스리는 일은 재래의 관습과 습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학과와 마찬가지로 배워야만 한다.
- ③ 家政의 責任: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직분이다. 여자인 주부는 근검한 태도로 집을 잘 다스려 남자가 밖에서 자신의 직분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家政의 大綱: 주부가 책임져야 할 家政은 크게 "家人의 감독", "一家의 風範", "一家의 衛生", "一家의 理財"로 나뉜다.

##### 2. 家人의 監督

집 안에서 주부가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구성원은 노인, 아동, 환자 그리고 노복이다.

- ① 小兒를 教育하는 大要: 健兒·賢者는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머니 노릇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아·현자의 출산을 위해 임신시 의식주에서의 위생적 측면은 물론이고 '산보'와 같은 꾸준한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심신을 '상쾌'하게 하는 등 심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양육을 위해 모유와 인공포육의 장단점, 유모의 선택, 수유 시간, 이유시기, 아동의 의복·음식·거처, 아동에게 흔한 질병, 수면·운동·놀이·장난감·목욕 등의 아동기 특성을 알아야 한다.
- ② 家庭教育: 주부는 자녀의 가정교육 담당자이다. 자녀가 학교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므로, 주부는 교사를 도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도와야 한다. 또 어렸을 때의 습관의 중요함을 알아 상과 별로 아동을 훈육해야 한다.
- ③ 小學教育: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지만,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집 밖 직무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머니는 학교교육을 온전히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 ④ 養老: 노인의 공양은 주부의 중요한 임무이다. 주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의복·음식·거처 등으로 노인을 봉양하여야 하고, 노인기의 신체적·심리적 動靜를 파악하여 수면, 운동, 목욕은 물론 노인에게 흔한 질병과 그 간호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⑤ 病者의 看護: 간호는 주부의 임무이다. 간호법에 대한 무지는 죽음에 이르는 참상을 가져오니 주부는 발병의 징후를 세심히 관찰하여 의사의 진찰을 도와야 한다. 전염병 발병 시의 조치, 가정 상비약과 기구, 부상과 중독시의 조치, 의사진찰시의 유의사항, 빠른 쾌유를 돕는 병실환경 조성 및 관리, 호흡과 체온에 관한 의학적 지식, 간호시의 주의사항을 알아야 했다.
- ⑥ 婢僕: 주부가 감독해야 할 집안사람의 하나가 비복이다. 주부는 성질이 質素하고 신체가 강건한 하인을 선택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봉급을 지불하면서, 직무를 분담케 하고, 상과 벌을 통해 그 집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휴가, 근무시간, 음식, 저축 등 효율적으로 노복을 고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 3. 一家의 風範

- ① 家政의 習慣: 주부는 가정의 습관을 올바르게 만들 책임이 있다. 仁恕와 정중의 태도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노복에게도 습득시켜야 한다.
- ② 兒女의 儀範: 자녀의 행동거지의 良否는 그 집의 선악의 지표이다. 어머니로서 주부는 자녀를 항상 엄하게 가르치어 훗날 남자는 사회의 유용한 '인재'로, 여자는 남편을 돕는 '부인'으로 길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윗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형제자매간의 장유의 질서, 바른 언행, 손님을 맞아하는 방법, 식사에절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일시에 가르친다면 아동의 '활발한 태도를 잃게 될' 우려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③ 溫良 孝 德: 溫良恭儉한 주부의 성품은 일가의 행복이며, 그런 어머니의 존재는 마치 태양이 땅을 비춰 초목을 싹틔우고 꽃을 피게 하는 일과 같은 것

이다. 주부이자 어머니인 여성은 침착하고 정결하고 겸손의 태도를 갖추어야 했다.

- ④ 規則과 秩序의 習慣: 작은 일이라도 규칙과 질서의 습관으로 행하여야 한다. 주부는 요일별로 집안일을 계획·수행해야 하며, 집안 대소사에 시간배분을 잘 해야 하며, 일의 효율성을 위해 집안 용품들은 각각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노복을 비롯하여 집안사람들에게 일을 잘 분담시켜야 한다.
- ⑤ 早起의 利益: 일찍 일어나는 것은 가정을 다스리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건강한 사람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5·6시까지 대략 7·8시간씩의 수면시간을 가져야 한다.
- ⑥ 家庭의 陳設: 주부는 집안의 장식·손질·관리의 방법을 익혀야 한다. 家庭은 그 '陳設이 정연하고 장식이 화려'한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쾌락하게 하여 정신이 爽然할 뿐 아니라 지식을 증가하며 기질을 장건케 하고, 또 巧藝한 사상이 생기며 언어와 (行動) 舉止가 자연히 優美端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⑦ 室內의 快樂: 쾌락은 아동과 관계된 것이다. 쾌락은 아동의 풍기를 양성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근원이다. 주부는 자녀의 쾌락을 위해 화초, 운동기계, 장난감 등을 두어야 하며, 기담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아동을 '항상 쾌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 ⑧ 교제: 사람에게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집밖의 직무에 종사하는 남자와 달리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주부는 '교제'의 예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부는 길흉사 방문시 주의사항 및 적절한 기증물품, 바람직한 방문시간, 편지봉투 쓰는 법 등의 '우체조례'를 비롯하여 손님초대시 주의사항과 그 상차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4. 衛生

위생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곧 '문명됨'의 한 지표이다. 주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가정위생'은 '개인위생'을 의미하며, '공익위생'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부의 직무이다.

- ① 光線과 空氣와 土地의 要: 생물체로서 인간의 생존에 햇빛과 공기와 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오염된 공기는 피부병, 관절병, 눈병, 컷병 등의 질병은 물론 심하면 죽음의 원인이 된다. 혈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공기는 청결해야 하기에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또 질병은 특정지역의 '토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쁜 토질은 무엇보다 불량한 수질의 결과이다.
- ② 室內의 運動과 身體의 清潔: 위생은 건강을 만드는 데, 이는 '운동'과 '청결'을 통해 달성된다. 운동은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심신을 활발하게 만든다. 운동 없이 학문에만 매진하는 사람이 '뇌병'에 자주 걸리는 것은 신체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피부가 더러우면 혈액내의 오염물이 배설되지 못하여 병에 걸리는 것이니 '신체의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
- ③ 飲食: 음료, 食物, 식단, 조리, 저장이 위생적이어야 한다. 먼저, 대표적 음료인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주부는 연수, 경수, 석탄수 등 물의 종류와 성질, 더러운 물의 정수법을 알아야 한다. 음식물은 폭식·폭음을 피해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부는 식품에 함유한 주요 성분, 그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권장 섭취량을 알아야 하며 식사시간이 규칙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곡류·콩류·薯類<sup>16)</sup>·채소류·과실류·과자류·난류·육류·향료 등 식품종류별 성분 및 영양상의 이익을 알아야 한다. 식품의 영양과 소화, 재료비에 따라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식단을 짜야 하는데, 이때 식단은 그 음식물의 조합 및 '家長'의 선호를 고려해야 한다. 조리는 소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류별 식품의 저장법을 알아야 한다.
- ④ 衣服: 의복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부녀의 當務"이기에, 부인은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의복착용법을 포함하여 의복착용 목적, 의복용으로 적합한 옷감의 재료 및 그 선택, 재봉, 보존 및 예복을 학습해야 한다.

- ⑤ 居住: 집은 추위와 더위를 막을 뿐 아니라 '종일토록 밖의 일에 종사하던 사람'의 쉼터여야 한다. 주부는 '실내장식'을 포함하여 공기의 방향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방법, 가옥의 구조, 배치, 정원과 함께 채색과 형식이 조화된 실내장식과 동양옥사와 서양옥사에서의 실내장식, 그리고 금속·도기·목구·식기의 가구관리를 알아야 한다.
- ⑥ 避難: 주부는 화재·풍재·지진·수해의 자연재해와 도난과 같은 인재를 예방하는 방법 및 재난 발생시 몸과 재산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5. 一家의 財政

一家의 富는 國家의 富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가의 부는 주부의 '內助'에 달려있기에 주부는 수입의 출납을 '嚴確'하게 하고, 혼음을 아끼는 등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① 財政의 要旨: 주부는 검소함과 인색함을 구별해야 한다. 家計 주관자로서 주부는 수입에 맞는 지출, 효율적 시간관리, 공공사업에의 협력 등 가계재정의 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出納: 주부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예산에 맞추어 가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주부의 중요한 임무이다.
- ③ 貯蓄: 저축은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적은 돈이라도 반드시 저축하여야 한다. 저축의 방법으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 ④ 物品의 購求: 물품구입은 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주부가 주관해야 한다. 필요한 물품을 양질의 것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가계운영이며, 외상은 피하고 현금매매를 하는 것이 가계경제에 유리하다. 항상 필요한 물품의 시가를 파악하고 있어 물품을 고가로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新訂家政學』, 『漢文家政學』, 『新選家政學』의 대·중·소단원은 아래 <표 6>, <표 7>, <표 8>에 나타나 있다.

16) 감자·고구마 등의 총칭

〈표 6〉 『新訂家政學』의 대단원·중단원·소단원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    |
|--------|---------------------|----------------|--------|----------------|------------|---------|----|
| 總論     | 家政의 關係              |                |        | 交際             | 訪問         |         |    |
|        | 家政의 必要              |                |        |                | 饗宴         |         |    |
|        | 家政의 責任              |                |        |                | 通信         |         |    |
|        | 家政의 大綱              |                |        |                | 寄贈         |         |    |
| 家人의 監督 | 小兒를 教育키 大要          | 胎教             | 衛生     | 光線과 空氣와 土地의 要  | 光線의 要      |         |    |
|        |                     | 哺育             |        |                | 空氣의 要      |         |    |
|        |                     | 小兒의 衣食宿        |        | 土地의 關係         |            |         |    |
|        |                     | 小兒의 生齒, 種痘, 疾病 |        | 室內의 運動과 身體의 清潔 | 室內의 運動     |         |    |
|        | 家政教育 <sup>17)</sup> | 小兒의 動靜과 遊戲     |        | 家庭教育의 要旨       | 飲食         | 飲料      |    |
|        |                     | 家庭教育의 準的       |        | 家庭教育의 方法       |            | 食物      |    |
|        |                     | 家庭教育의 戒則       |        | 小學校育의 要旨       |            | 各種의 食物  |    |
|        |                     | 小學校育의 要旨       |        | 兒童을 教育키는 主腦    |            | 食單의 法   |    |
|        | 養老                  | 老人의 衣食宿        |        | 老人의 動靜과 保養     | 衣服         | 調理키는 法  |    |
|        |                     | 老人의 疾病         |        | 發病             |            | 貯藏하는 法  |    |
|        |                     | 發病             |        | 負傷과 中毒         |            | 用水      |    |
|        | 病者의 看護              | 醫治의 要點         |        | 病室             | 居室         | 目的      |    |
|        |                     | 看護             |        | 看護             |            | 材料      |    |
|        |                     | 看護             |        | 看護             |            | 選擇      |    |
| 婢僕     | 婢僕의 備役              | 婢僕의 待遇         | 避難     | 裁製             |            |         |    |
|        | 婢僕의 待遇              | 仁恕             |        | 衣服의 保存         |            |         |    |
| 一家의 風範 | 家政이 慣習              | 鄭重             | 一家의 財政 | 財政의 要旨         | 禮服의 制      |         |    |
|        |                     | 少長의 交際         |        |                | 選擇         |         |    |
|        | 兒女의 儀範              | 兄弟의 情誼         |        | 兒女의 言行         | 出納         | 家屋의 構造  | 配置 |
|        |                     | 對客의 行爲         |        | 食膳의 須知         |            |         | 庭園 |
|        |                     | 微細에 留意할 事      |        | 敎訓은 督促을 忌할 事   |            | 陳設      | 家具 |
|        |                     | 沈着             |        | 沈着             |            |         |    |
|        |                     | 溫良의 德          |        | 精潔             |            | 精潔      | 貯蓄 |
|        | 遜言                  |                |        | 遜言             | 地震         |         |    |
|        | 規則과 秩序의 習慣          | 則序의 宜整         |        | 器物의 定在         | 物品의 購求     | 水害      |    |
|        |                     | 家人의 分職         |        | 家政을 治할 事       |            | 盜難      |    |
|        | 早起의 利益              | 健康을 保할 事       |        | 睡眠時刻           | 物品의 購求     | 儉과 吝의 別 |    |
|        |                     | 睡眠時刻           |        | 快樂의 要義         |            | 經濟上의 戒愼 |    |
|        | 家庭의 陳設              | 快樂의 方法         |        |                | 物品의 購求     | 時의 利用   |    |
|        | 室內의 快樂              | 快樂의 方法         |        |                |            | 物品의 購求  | 義損 |
|        |                     |                | 物品의 購求 | 豫算             |            |         |    |
|        |                     |                |        | 物品의 購求         | 簿記         |         |    |
|        |                     |                | 物品의 購求 |                | 主任         |         |    |
|        |                     |                |        | 物品의 購求         | 要義         |         |    |
|        |                     |                | 物品의 購求 |                | 方法         |         |    |
|        |                     |                |        | 物品의 購求         | 效益         |         |    |
|        |                     |                | 物品의 購求 |                | 選擇即前買買와 外上 |         |    |
|        |                     |                |        | 物品의 購求         | 制限         |         |    |
|        |                     |                | 物品의 購求 |                | 時價         |         |    |

17) 목차에는 '家政教育'이라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家庭教育'이라 되어 있다. 家庭과 家政은 다른 말로서, 家庭教育이 아들과 딸을 포함한 자녀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면 家政教育은 딸

과 여학생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목차의 '家政'은 '家庭'의 오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본문에는 '家庭教育'이라 되어 있으며, 『新訂家政學』의 원본에 해당하는 『한문가정학』과 『신선가정학』 역시 家庭教育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7〉 「漢文家政學」의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
|-------|-------------|------------|-------|----------------|--------|-------|
| 總論    | 家政之關係       |            |       | 交際             | 訪問     |       |
|       | 家政之必要       |            |       |                | 饗宴     |       |
|       | 家政之責任       |            |       |                | 書信     |       |
|       | 家政之大綱       |            |       |                | 寄贈     |       |
| 家人之監督 | 教育幼兒之 大要    | 胎教         | 衛生    | 光線空氣及<br>土地之要點 | 光線之要   |       |
|       |             | 哺育         |       |                | 空氣之要   |       |
|       |             | 小兒衣食宿      |       | 室內運動及<br>身體之清潔 | 土地之關係  |       |
|       |             | 小兒之生齒種痘及疾病 |       |                | 室內之運動  |       |
|       |             | 小兒之動靜及遊戲   |       | 飲食             | 身體之清潔  |       |
|       | 家庭教育        | 家庭教育之要旨    |       |                | 飲料     |       |
|       |             | 家庭教育之準的    |       |                | 食物     |       |
|       |             | 家庭教育之方法    |       |                | 各種食物   |       |
|       |             | 家庭教育之戒則    |       |                | 食單法    |       |
|       | 小學校育        | 小學校育之要旨    |       | 衣服             | 調理法    |       |
|       |             | 教育兒童之主腦    |       |                | 貯藏法    |       |
|       | 養老          | 老人之衣食宿     |       |                | 居室     | 用水    |
|       |             | 老人之動靜及保養   |       |                |        | 目的    |
|       |             | 老人之疾病      |       |                |        | 材料    |
|       | 病者之看護       | 發病         |       | 避難             |        | 選擇    |
|       |             | 負傷及中毒      |       |                |        | 裁製    |
|       |             | 醫治之要點      |       |                | 衣服之保存  |       |
|       |             | 病室         |       |                | 禮服之制   |       |
|       | 看護          | 看護         |       |                | 一家之財政  | 選擇    |
|       |             | 看護         |       | 家屋構造           |        |       |
| 婢僕    | 婢僕之傭役       | 避難         | 配置    |                |        |       |
|       | 婢僕之待遇       |            | 庭園    |                |        |       |
| 一家之風範 | 家政慣習        |            | 仁恕    | 財政之要旨          |        | 陳設    |
|       |             |            | 鄭重    |                | 經濟上之戒愼 | 家具    |
|       | 兒女之儀範       |            | 少長之分際 |                |        | 出納    |
|       |             | 兄弟之情誼      | 義損    |                |        |       |
|       |             | 兒女之言行      | 豫算    |                |        |       |
|       |             | 對客之行爲      | 簿記    |                |        |       |
|       |             | 食膳之須知      | 主任    | 地震             |        |       |
|       |             | 徵細須留意      |       | 水害             |        |       |
|       | 教訓忌迫促       | 貯蓄         | 盜難    | 要義             |        |       |
|       | 溫良之德        |            | 沈着    | 一家之財政          | 方法     |       |
|       |             |            |       |                | 精潔     | 效益    |
|       | 規則秩序之<br>習慣 |            | 遜言    |                | 購求物品   | 選擇    |
|       |             |            |       |                |        | 則序之宜整 |
|       |             | 器物之定在      |       |                |        | 制限    |
|       | 早起之利益       | 治家政        | 時價    | 時價             |        |       |
|       |             | 保健康        |       |                |        |       |
|       | 家庭之陳設       | 睡眠時刻       |       |                |        |       |
|       |             | 戶內快樂       |       |                | 快樂之要義  |       |
|       |             |            |       |                | 快樂之方法  |       |



〈표 8〉 시모다 우타코의 『新選家政學』

| 上卷   |                | 下卷     |                |
|------|----------------|--------|----------------|
| 대단원  | 중단원            | 대단원    | 중단원            |
| 總論   |                |        | 胎育             |
| 家内衛生 | 光線 및 空氣        | 小兒教養   | 哺育             |
|      | 土地             |        | 小兒의 衣食住        |
|      | 用水             |        | 小兒의 生齒, 種痘, 疾病 |
|      | 食物             |        | 小兒의 動靜 및 遊戲    |
| 家事經濟 | 經濟의 要旨         | 家庭教育   | 家庭教育의 必要       |
|      | 金錢의 出納         |        | 家庭教育의 目的       |
|      | 金錢의 貯蓄         |        | 家庭教育의 方法       |
|      | 物品의 購求         |        |                |
| 飲食   | 各種의 飲料         | 養老     | 老人의 衣食住        |
|      | 各種의 食物         |        | 老人의 動靜 및 保養    |
|      | 獻立(식단)法        |        | 老人의 疾病         |
|      | 料理法            | 看病     | 發病             |
|      | 貯藏法            |        | 負傷 및 中毒        |
| 衣服   | 衣服의 目的         | 交際     | 主治醫            |
|      | 衣服의 材料         |        | 病室             |
|      | 衣服의 選擇         |        | 看護             |
|      | 衣服의 裁縫         |        | 訪問             |
|      | 衣服의 保存         |        | 待客             |
|      | 禮服             |        | 響應             |
| 住居   | 住居의 選擇         | 避難     | 書信             |
|      | 家屋의 構造         |        | 音物             |
|      | 室의 配置 및 種類     |        | 火災             |
|      | 雜作             |        | 風害             |
|      | 庭園             |        | 震災             |
|      | 室內裝飾           | 水害     |                |
|      | 家具什器(가구집기)의 取扱 | 奴僕使役   | 盜難             |
|      |                | 奴僕의 備役 |                |
|      |                | 奴僕의 取扱 |                |

**V. 가정교과서 교과내용의 협의: 家政교과서에 나타난 家庭을 중심으로**

오여륜은 『漢文家政學』 서문에서 家政學을 '집안을 다스리는 要義로 설명한다. 즉, 家政이란 집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학은 여성이 家政을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사회진화론의 논리로 家政의 중요함을 역설

한다. 그리고 家政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주부'인 여성에게 부여한다. 전통적인 음양의 원리에 의해, 생물학적 성 결정론에 의해 여성은 '주부'였으며, '주부'여야 했다. 주부가 '家政學'을 배우는 일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런 '주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배움을 권하고, 행동을 바로 잡으며, 도하는 책임'이 있으며, 노복을 대하여서는 '지휘하고, 감독하여, 사무를 제

게 하는 일'이 있으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복을 계수 지급하는 책임이 있고, 外人을 대하여서는 賓客을 방문하고 접대하는 등의 사무가 있으니 번잡한 細務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규칙과 질서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교과서는 전미경(2004)에서도 지적되듯이 여성을 '주부'로 귀착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전략적 지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의 하나는 근대적 성별분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이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의 공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학교라는 제도권에 편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지'가 여성의 미덕이었던 과거의 남존여비적 잣대에 대한 항거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호명된 것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여성의 일상적 생활에도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성이 가장 근대적 장이라고 여겨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이 여성의 당위적 규범에 대한 전복이나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의 일상이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 예를 들면 어머니, 아내, 주부 등으로 귀착되는 중요한 지점이 학교교육이었고, 그 핵심에 가정교과서가 있다. 다시 말해, 가정교과목은 여성만을 위한 교과목이었고, 여성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과목이었다. 또 가정교과 내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새로운 서구적 지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과학적, 위생적, 실용적 측면으로 나아가게 할 뿐이었지 기존의 여성역할에 대한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확히 말한다면 기존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더욱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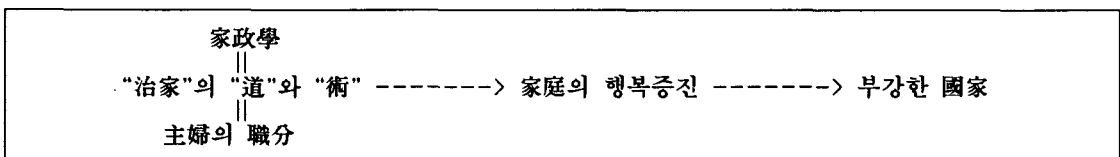
또한 남자는 사회에서 활동해야 하고, 여자는 집 안에

서 활동해야 한다는 근대적 성역할 규범은 가정교과목에 의해 더욱 고착되었다. 집안일을 잘 처리하는 여성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여성으로 말미암아 좋은 자녀 즉 제이국민이 만들어지고, 가정생활의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가의 행복"은 물론 "일국의 번영"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사실 이런 논리는 가정교과서 전편에서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몽담론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가정교과서는 재래 여성이 담당해야 할 家政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교과내용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공기·세균·질병·위생 등의 근대적 지식을 적극 수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治家' 즉 '家政'을 말하고 있다. 이제, 가정교과서인 『신정 가정학』에 나타나 있는 家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① 국가의 기본단위로서의 家庭

가정교과서에서 말하는 家庭과 여성의 역할인 家政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 있었다. 오여륜의 『한문가정학』에 따르면, 작금은 "강한자는 날로 강해지고 약한자는 날로 약해지"는 시대이므로 한 나라의 기본단위인 '家庭'을 잘 다스리는 '家政'은 국가의 부강강병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國은 무수히 많은 家의 집합체로 나타나며, 家庭의 德教, 經濟, 衛生은 국가의 그것을 완성하는 첫걸음으로 설명한다. '家'를 다스리는 학문'인 가정학은 治家의 道와 術을 의미하며,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주부의 직무이다. 전통적인 음양이론에 의하여, 그리고 서구적인 성과학에 의하여 사회를 대표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정' 즉 '안'의 공간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집을 다스리는 家政의 직무를 부여하게 만들고, 家政의 직분은 여성에게 '主婦'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 '女性=家庭=家政=主婦'라는 등식은 성별 이분화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그림 5〉 主婦와 家庭과 國家의 관계

복지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 ② 교육의 장으로서의 家庭

가정교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하위영역 중의 하나는 '家庭教育'이다. 家庭은 자녀를 교육하는 공간이어야 했으며,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家庭教育의 담당자는 어머니여야 했다. 교육의 공간으로서 '가정'과 어머니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인 '가정교육'이 부각된 이유는 '아동'을 국가의 棟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가정교과서에서, 교육은 독서·산술·습자와 같은 지식을 양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기질을 양성하며, 행실을 바르게 하며, 태도를 우미'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만이 유용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가정교과서는 교육이란 '아동의 습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말한다. 특히 아동기의 습관이 중요한 것은 이때야말로 좋은 습관을 습득하기 가장 용이한 시기이기 때문이며, 이 시기의 잘못된 습관은 교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家庭教育'에 유념하여, '유아의 심신이 유아한 아동기 때 '선량한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아동의 습관은 강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 역시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교'와 그 '방침'을 같게 하여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이 소학교육 즉 학교교육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또 가정교과서는 모성과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당위성은 어머니나 여성의 측면이 아니라 아동의 측면에서 확보된다. 즉, 심신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어머니의 심신의 건강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공적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강보에서부터 출발하는 가정교육에의 강조는 가정을 훈육의 장소로 만들고 있었다.

### ③ 휴식의 장으로서의 家庭

가정교과서에서 말하는 '家政'이 주부의 역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家庭 안에서 가장, 아버지, 아들의 지위로 대표되는 남성의 역할이 상당부분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수행의 축소는 전

적으로 가정 밖에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징후는 노골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신정가정학』에서 家庭은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 남편, 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통사회와 달리 여성인 주부가 이웃·친척과의 교제시 예의 및 주의사항, 내빈을 맞이하는 방법 등을 숙지해야 했던 이유는 가정교과서가 만드는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사회', '여자=가정'이란 이분화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家庭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던 남성이 집에 들어 왔을 때, '불가불 居室의 낙으로써 그 勞함의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가정교과서는 주부가 습득해야 할 여러 지식과 태도와 기술의 당위를 이분화 된 성별역할에 두고 있었기에, 家政에 대한 주부역할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남자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가정은 일에 지쳐 돌아온 남편이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었다.

### ④ 소비의 장으로서의 家庭

가계경제는 家政學의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주부는 그 집의 재정 담당자로서 한달·일년의 수입에 따른 예산을 세워 지출을 하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은 주부가 직접 관장하면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근검·절약의 소비생활,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강조하는 주부역할은 가정을 소비의 공간으로 재명명하고 있다. 특히 주부에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물품 구매 요령이었다. 주부는 일용품과 장식품·중여품 등 물품의 성격에 따른 구매요령을 습득해야 하며, 예산에 없었던 물건의 구매나 외상은 피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부는 항상 필요한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유통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처럼 가계경제의 담당자 주부의 역할은 철저하게 소비의 측면에 기울어져 있다. 가정교과서에서 생산의 측면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생산은 가정 밖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며, 남성의 일이었다.

## VI.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첫째, 학부에서 『교과용도서일람』을 발행하면서 가정 수업시간에 쓸 수 있는 가정교과서를 인가하였는데, 그것은 현공립 발행의 『漢文家政學』(1907년), 『新編家政學』(1907년), 『新訂家政學』(1913년)이지만, 1912년에는 전자의 두 가정교과서가 1914년에는 『신정가정학』의 인가가 취소되어 불인가 가정교과서가 되었다.

둘째, 정부인가 및 불인가 가정교과서의 발행인은 모두 현공립이다. 그는 당대 유명한 역관집안의 자손으로 아버지 현채와 함께 활발한 애국활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현공립이 발행한 가정교과서의 원저자는 일본여성인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로 1900년에 발행된 그녀의 『新選家政學』 상하권을 1902년에 중국의 오여륜이 漢譯하였고 이를 다시 현공립이 1907년 한문본 『漢文家政學』과 국한문본 『新編家政學』으로 각각 발행하였다.

셋째, 조선에서 발행된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그리고 『新訂家政學』의 단원구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책의 모본에 해당하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은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과내용도 앞서의 가정교과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교과내용의 차이는 중국에서 오여륜에 의해 편역될 때 이루어졌다.

넷째, 가정교과서에서 가정은 국가의 기본단위였으며, 교육·휴식·소비의 장으로 명명되었다.

이제, 이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부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중국에서 발행된 오여륜의 가정학 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즉 현공립이 발행한 『漢文家政學』의 서문을 살펴보면, 오여륜이 쓴 서문을 그대로 옮기고 있으며, 목차가 동일하고 교과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오여륜의 가정학 책이 첨삭 없이 현공립에 의해 그대로 조선에서 발행되었다고 짐작되지만, 정확하게 중국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앞으로의 후속연구에는 일본에서 발행된 시모다 우타코의 『新選家政學』(1900), 중국에서 발행된 오여륜의 가정학 책(1902), 조선에서 발행된 현공립의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 『신정가정학』의 교과내용에 초점을 둘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교과서는 『신선가정

학』과 오여륜의 가정학 책을 그대로 발행한 현공립의 『한문가정학』이다. 왜냐하면, 오여륜은 시모다의 『신선가정학』을 자신의 가정학 책으로 한역할 때 중국의 현황을 참작하여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듯이 그 모본인 시모다의 『신선가정학』과 오여륜의 가정학 책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오여륜의 가정교과서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 교과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교과구성 및 내용을 첨부 혹은 삭제하여 단원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이에 다음의 후속 연구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이 한역될 때 어떤 내용이 첨삭되었는지 그 구체적 지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의 변이의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 변이의 계기가 일본과 중국이 처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당대 조선의 여성관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의 현모양처담론은 일본의 양처현모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가정교과서는 이러한 현모양처담론의 주요한 생산처이자 유통처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강운호 (1973). 개화기의 교과용도서. 교육출판사.  
 김양수 (1998). 조선전환기의 증인집안활동: 현덕윤(玄德潤)·현채(玄采)·현순(玄順) 등 친영현씨(川寧顯氏) 역관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02, 185-272.  
 김영경 (1997). 한말 증인층의 근대화운동과 현실인식: 서울지역 역관 친영현씨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수자 (1969). 백당현채(白堂玄采) 연구. 이대사원 8, 69-98.  
 양문식 (1973). 개화기 이후 가정교육의 사적고찰: 1900-1945. 대한가정학회지 11(1), 92-106.  
 오설철 (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우영희 (1973). 가정학의 변천과 대학가정학교육의 방향. 국민대학논문집 6, 351-372.  
 이승구 외 (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종국 (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혜영 외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장신 (2004).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91. 1-23.
- 전미경 (2004). 식민지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3) 1-25.
- 전세영 (1999). 현재의 교육 및 애국가운동에 대한 정치사상적 평가: 『幼年必讀』과 『幼年必讀釋義』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69-92.
- 정덕희 (1977). 우리나라 초등가정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논문집 10. 511-543.
- 정덕희 (1978).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가정과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1945-1955). 서울교육대학논문집 11. 415-442.
- 정덕희 (1980). 한국의 가정과교육 변천 관한 연구 I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13. 511-552.
- 정덕희 (1981). 한국의 가정과교육 변천 관한 연구 II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14. 385-412.
- 정덕희 (1982). 한국의 가정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III. 서울교육대학논문집 15.
- 정덕희 (1993a). 구한말 개화기부터 8·15광복까지의 가정과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덕희 (1993b). 8·15 광복직전·후의 가정과 교육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2). 1-14.
- 정재걸 외 (1994). 한국 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정은경 (1997). 개화기 현재가의 저·역술 및 발행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4. 303-334.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인가 교과서라 할 만한 현공림 발행의 가정교과서의 외형적·내용적 측면과 함께 발행인 등 교과서가 발간되기까지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들 가정교과서의 母本에 해당하는 일본의 가정교과서와 그 교과서의 저자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는 『교과용도서일람』을 발간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사용할 수 없는 교과서를 구별하였다. 가정교과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10년 현재 학부 인가 가정교과서는 현공림 발행의 『漢文家政學』과 『新編家政學』이지만, 1912년에 들어서면 이 교과서는 불인가교과서가 되며, 1914년에는 불인가 가정교과서 목록에 현공림 발행의 『新訂家政學』이 추가된다.

2. 정부 인가 및 불인가 교과서를 발행한 현공림은 조선전기부터 유명한 역관집안 출신이었다. 당시의 역관은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점으로 외국의 서적을 조선의 지식층에게 소개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

3. 현공림이 발행한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訂家政學』은 목차를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1902년 7월 즈음에 중국에서 吳汝綸에 의해 발행되었고, 이 교과서를 현공림이 1907년 12월 조선에서 한문본 『한문가정학』과 국한문본 『신편가정학』으로 발행하였다. 오여륜이 발행한 가정교과서의 母本은 1900년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에 의해 발행된 『新選家政學』 상하권이다.

4. 현공림 발행의 가정교과서는 '총론', '家人的 감독', '一家의 風範', '위생', '一家의 재정' 등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그 모본에 해당하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 교과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중국에서 발행된 오여륜에 의해 이루어졌다.

5. 家政 교과서에 나타난 家庭은 ①국가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 ②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 ③휴식의 장으로서의 가정, ④소비의 장으로서의 가정으로 요약된다.